

선진사례를 통해 본 행복지수의 개발 방향

고승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행복에 들어서며

우리사회는 지난 40여년간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화의 성취로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삶의 질과 행복에 관한 각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성장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 수준이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GDP의 개념이 사회발전 측정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각 국에서도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차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경제이외의 다른 여건들을 중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GDP는 행복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소득수준이 삶을 풍족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인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GDP 등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복지수준이나 삶의 질 등도 국가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의 여러 기구와 국가들에서 사회지표 체계 및 삶의 질, 행복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를 측정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적 수준에서 지방의 수준으로 까지 행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행복이라는 것이 다분히 주관적인 것으로 그 정의와 개념이 명확치 않으며 지표체계 또한 보편적이지 않고 다양한 기준으로 측정되고 있다. 보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의 특성에 따라 보편적인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행복에 대한 측정이 부각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정의와 측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충남에서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라는 비전을 세우며 '행복'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기존의 행복에 대한 논의와 사례 등을 검토하여 향후 충남의 행복도 향상을 위한 도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행복의 개념과 논의

충남논단

행복은 사전적 의미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심신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상태' 등으로 정의된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그러나 행복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고(Veenhoven, 2007), 행복을 보는 시각에서도 차이가 있다. 행복은 개인의 전체 삶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과 평가로 정의되기도 하며(Diener, 2007; Dolan, 2007; 현경자, 2004), 웰빙 또는 삶의 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BBC 행복위원회 의원인 '리더드 리브스'에 따르면 행복한 삶은 지극한 만족감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다. 행복한 삶은 비극, 도전, 불행, 실패, 그리고 후회까지도 모두 껴안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불행해질 수도, 행복해질 수도 있다'고 행복을 설명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재인용). 즉, 뚜렷한 정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개인의 기대수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행복에 대한 초기의 접근은 철학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경험적으로 행복에 접근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가? 이에 대해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Diener, 1985). 하나는 객관적인 차원으로 삶의 다양한 물리적 구성요소인 의식주, 건강, 성별, 연령, 소득, 교육, 보건, 여가와 같은 객관적 지표를 통해 파악되는 삶의 물질적 조건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흔히 안녕감(well-being)이라고 불리는 주관적인 차원으로 삶에 대한 행복감, 만족감, 자립감, 성취감, 문화적 풍요로움, 안전, 스트레스의 부재 등 주관적 평가 및 인지상태를

의미한다. 즉,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삶의 조건, 주관적 감정, 만족감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행복을 위하여 행복지수가 개발되어 측정되고 있다. 행복지수란 개인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수치화하고 이들 간의 비교를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생물학에서는 호르몬이나 약물의 양 등으로 행복을 측정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회과학과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행복감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과학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3. 행복지수의 개발과 운영사례

행복이라는 자체가 주관적이며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측정방법과 지표 또한 주관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행복지표 및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표들을 검토하며, 이와 더불어 국내 및 해외 연구와 국가별 연구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유사지표 검토

① 행복지표

기존의 행복측정 관련 지표들은 UNDP 인간개발지수, 행복한 지구 지수(HPI, The Happy Planet Index), 행복공식(영국BBC 방송), 부탄 국민총행복지수(GNH), 행복도측정조사 등이다. 행복을 측정함에 있어서 주관적 관점, 객관적 관점, 혼합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관점은 행복공식,

행복도측정조사, 국민총행복지수 등이며 객관적 관점은 UNDP 인간개발지수,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행복한 지구 지수 등이다. 기존의 행복관련 지표는 상당수 국가별 수준이나 순위를 비교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며 특히 지역별 수준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② 사회지표

1960년대 들어 개발되기 시작된 사회지표는 경제지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회복지나 삶의 질 같은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지표는 사회적 영역의 현재 상태나 과거, 미래의 경향에 관한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 OECD에 따르면 사회지표는 국가적 평균치를 나타내어야 하며 분석적인 목적을 위해 세부구성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지표에 포함되는 사항은 연구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보건, 질병, 자연환경, 소득, 문화예술, 참여, 공공질서 등에 관한 정보이다.

③ 삶의 질 지표

삶의 질 또는 생활의 질 지표(Quality of Life Indicators)는 경제, 사회, 환경지표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국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회개발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삶의 질 지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들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보건, 소득, 고용, 생산성, 교육, 교양, 자유, 개인주의 등 경제, 사회 및 환경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지표체계는 6가지 영역(물리적, 심리학적, 독립성,

사회적 관계, 환경, 정신적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는 4개의 항목(신체적 건강, 심리적, 사회적 관계, 환경)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과 건강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④ 환경 질 지표

환경 질 지표는 환경상태의 측정을 위한 일련의 지표이다. 1978년 도시환경지표개발위원회의 개념규정에 의하면 사회지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환경지표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지표 개발의 주요대상은 공기 및 수질오염의 측정, 위험물질의 사용빈도 측정, 폐기물처리, 토지이용과 토양보전, 자원고갈, 야생동물의 관리 등이다.

⑤ 지속가능 발전 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경제지표, 사회지표, 환경지표로 발달하여온 사회의 성장이나 발달을 측정해 보려는 시도이다. 지속가능 범위는 공통적으로 주어지며 환경, 자원, 생태, 경제 뿐 아니라 사회, 제도, 정치, 심리적인 측면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환경문제를 보는데 있어 단순히 환경의 질 변화 뿐 아니라 해당지역의 수용능력의 변화에 대한 관찰을 중시하고 있다.

2) 주요연구 검토

① 국내연구 검토

한국사회의 행복을 측정하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개별연구들로 일회성 연구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민 행복지수(서울시장개발연구원 2006)의 경우 서울시를 대상으로 지속적

충남논단

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 범위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지역적 연구에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표의 구성방법에 있어서는 이현송(1997)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측정내용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 연구의 대상이 다르기도 하지만 질문항목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성하고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② 국제연구 검토

국제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 간의 비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가 매우 단순화되어 있으며 통계자료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표의 구성에 있어 조사기관의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 사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측정기관이 각 기관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국제 간의 비교연구는 우리사회의 세부적인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나 정책결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세부지표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③ 국가별 연구

국가별 연구는 행복지수 보다는 삶의 질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비교보다는 그 사회의 시계열적인 비교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그

사회적 특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반영하는 지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로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 주관적 지표를 추가로 구성하고 있다. 영역의 구성에서 있어도 나라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체 사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부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OECD에서도 국가별 행복측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④ 개별연구

개별 연구들의 내용은 주로 심리학적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측정방식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평가로 측정되고 있으며 측정내용 또한 개인의 삶 전반에 걸친 만족도, 자아성취감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다. 전반적인 개인의 삶에 대한 항목으로 국가 또는 지역의 행복지수에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행복이 어떠한 요소로 구성될 수 있는가에는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4. 충남의 행복지수 개발 방향

지표 및 측정을 위한 노력들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복의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표들의 영역구분 방식은 대부분 기존 연구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행복과 삶의 질의 결정요소는 경제적 측면, 건강 측면, 사회관계 측면, 생활환경여건, 자

선진사례를 통해 본 행복지수의 개발 방향

〈표 1〉 행복측정 관련 지표와 내용

지표명	측정구분	지표구성		영역내용
		영역	지표	
UNDP의 인간개발지수	객관적	3	4	평균수명/교육수준/생활수준
EIU의 삶의 질	객관적/주관적	9	9	물질적 안녕/건강/정치적 안정성/가족생활/공동체생활/기후/직업안정성/정치적 자유/성평등성
NEF의 행복한 지구 지수	객관적/주관적	3	3	평균수명/생태학적발자취/삶의 만족도
WHO	주관적	6	100	신체적 건강/심리적 측면/자립성/사회관계/환경/종교 및 신념
캐나다 웰빙	객관적/주관적	7	37	생활수준/시간사용/건강/생태계/교육/공동체/시민참여
부탄 GNH	객관적/주관적	9		심리적웰빙/시간활용/공동체활성화/문화전통/건강/교육/환경/생활수준/거버넌스
호주 웰빙	객관적/주관적	9		인구/가족과 공동체/건강/교육/직업/경제자원/주택/범죄/문화와 레저
행복공식	주관적	3	4	개인적 특성/생존욕구/고차원욕구
한국인의 삶의 질(이현승)	객관적	6	30	소득/보건/교육/노동/문화정보/형평
행복지수 공식개발 (김명소 외)	주관적	16	97	경제력/사회정치문화환경/외모/건강/자녀성정/부모 및 친지관계/배우자의 사랑과 신뢰/타인과의 관계/사회적 지위/자기수용/자기계발/자립성/여가/긍정적 인생관/사회봉사/종교
서울시민 행복지수	주관적	8	29	경제/문화교육/복지/사회안전/생태환경/생활환경/시민시정/공동체
신국민생활지수(일본)	객관적	8	204	주거/소비지출/근로/양육/보건의료/여가/교육/교제, 관계
홍콩의 삶의 질	객관적/주관적	3	21	사회와 문화/경제/환경

아성취와 만족감, 교육 등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앞선 연구들과 운영사례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충남의 행복정책을 위한 지수개발 시 고려사항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수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행복지수의 산출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타 지역과의 비교를 위해서라면 비교 지역과의 공통지표로 지수가 구성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 지역의 세부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전반적인 비교수준에서 머물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간 비교는 자칫 지수개발 및 적용과 측정의 타당성에 지역 간 이견

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타 지역과의 비교인지, 기간별 충남의 변화인지 등 그 사용목적이 다양할 수 있으며 이를 우선적으로 확정짓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국가별 논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충남의 기간별 변화와 관리에 대한 목적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측정지표의 구성에 있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사용에 신중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결과 측정지표가 객관적이나 주관적이나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바, 연구 및 활용목적을 분명히 하

충남논단

고 이에 대한 사용방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주관적 지표를 강조하고 있고 비교가능성과 정책활용을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 두 측면 모두 중요하다. 객관적 지표의 경우 지표의 타당성과 주관적 만족도나 감정은 측정될 수 없기에 한계가 될 수 있지만 성별, 연령, 학력, 경제적 수준, 직업 등 일부 객관적 지표는 행복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들로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객관적 지표의 경우 어떠한 지표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지, 즉, 어떠한 지표가 조사되어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충남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앞선 사례와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세부적인 행복요소들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국가별 비교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충남의 행복정책 수립과 관리를 위한 지수개발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충남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충남의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5. 행복을 생각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충남의 경우도 기존 경제 중심의 정책에서 복지, 행복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여전히, 시작단계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진다. 이 글은 간략하게나마 기존의 행복과 관련된 연구와 사례 등을 통해 충남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해 고려되어

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물질적 측면이 아닌 정신적 가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행복측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임은 분명해 보인다. 행복이란 주관적인 개념으로 도민들의 개개인의 감정에 따라 정의와 측정에 대한 논란과 이견들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 논의들과 이제 겨우 출발하는 시점인 것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즉,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인 것이다.

행복지수의 개발과 측정은 정책적인 목적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행복지수의 개발과 측정, 그리고 이를 반영한 정책의 연계는 충남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김명소·한영석(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7(2)
 박종민·김서용(2002), “한국인의 삶의 질”, 『아세아연구』, 45(2)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6), 「시민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이현송(1997), “한국인의 삶의 질: 객관적인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1.
 Diener, E., R. Emmons, R. J. Larsen, and S. Griffin(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Diener, E.(2007), “Happiness Accounts for Policy Use”, Is happiness measurable and what do those measure mean for policy?, International OECD Conference Rome, 2-3 April 2007.
 Dolan, P.(2007), “Cost-happiness Analysis: a new and improved form of economic appraisal?”, Is happiness measurable and what do those measure mean for policy?, International OECD Conference Rome, 2-3 April 2007.
 Veenhoven, R.(2007), “Measure of Gross National Happiness”, la Happiness Measurement and What Do Those Measures Mean for Policy?., International OECD Conference Rome, 2-3 April 2007.